투데이 칼럼

바다는 인류 문명의 보고(寶庫)다

이 류의 문명은 강에서 시작돼 바다에서 발전했다. 고대 그리스부터 인류는 바다를 관찰하고 이용해왔으며 역사를 돌이켜보면 세계 문명의 중심에 있던 나라들은 대부분 바다를 지배한 나라들이었다. 근세를 주름잡았던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등은 대서양과 인도양을 지배했으며 섬나라영국은 오대양의 해상권을 장악해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별명까지얻었다. 그만큼 인간과 바다는 뗄수 없는 운명적 동반자 관계였다.

지난달 5월 31일은 정부가 제정한 '바다의 날'이었다. 이날을 바다의 날로 제정한 것은 21세기 해양시대 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바 다의 날을 전후해 해양 관계자들이 바다사랑 캠페인과 바다 이야기를 펼치는 것도 바로 이런 배경의 연 장선이다. 다만 일부에서 '바다의 날'(5월 31일)과 '수산인의 날'(4월 1일)을 통합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 다. 바다라는 이름을 놓고 바다의 날과, 수산인의 날이 각각 있는 건 부적합 하다는 것이다. 관련 부처는 해양수산부 하나인데 '바다의 날' 은 해운항만계를, '수산인의 날'은 수산계를 대표하는 날로 분리・고 착화돼 있다. 둘로 쪼개져 있는 해 운항만계와 수산계를 하나로 묶는



고 재 흠 _{수필가}

용된다. 전문가들은 바다에 70억 톤

이상의 망간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

로 추정하고 있다. 망간 뿐 아니라

코발트, 니켈, 탈륨 및 희토류원소

만일 이 세상에 바다가 없다면 어

떻게 될까? 세상은 상상하기 어려

운 엄청난 고온에 시달릴 것이다.

더 단적인 예로 우리는 겨울바다의

낭만을 즐길 수 없다. 파도와 갈매

기 소리조차 사라질 것이다. 각종

싱싱한 수산물을 먹을 수 없을 것

이고,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특히 전북은 바다의 날을 남다르

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새만금이

있기 때문이다. 부안, 김제, 군산을

잇는 새만금은 전북이 앞으로 해양

산업 도시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담

당하기 위한 곳이다. 즉 해양수산분

야 바이오산업 등 신산업 육성을

와 같은 귀금속도 존재한다.

것도 좋을 듯하다.

인간은 바다와 함께 살아간다. 검 푸른 빛을 띤 그 바다 깊숙한 곳에 는 무엇이 있을까. 바다는 무한한 자원의 보고이자 지구상에 남은 마 지막 미지의 세계이다. 바다는 지구 온난화를 야기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매우 중요한 생태계이다. 지구 산소의 75%는 해양으로부터 공급되고, 이산화탄소의 50%가 해 양에서 정화된다.

기후조절 기능은 바다가 베푸는 큰 혜택 중 하나이다. 만약 대기와 물의 순환 메카니즘이 파괴될 경우 해수의 온도에 변화가 생겨 카트리 나와 같은 거대한 자연재해가 발생 한다.

또 바다 깊은 곳에는 귀중한 천연 지원이 있다. 해저에는 철과 수산화 망간으로 구성된 망간단괴가 있다. 망간은 금속합금을 생산하는 데 사 부상하는데 전북이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 바다가 품고 있는 미래와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새만금이 21세기 동북아 해양 중심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총력을 쏟아야 한다.

장착하고 동북아 해양관광대국으로

그러나 한편 바다는 신음하고 있다. 인간이 마구 버린 쓰레기 때문이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지구상 해양 쓰레기는 약 1억5천만 톤이라고 한다. 일반 생활쓰레기에서부터 폐어구, 폐플라스틱, 선박에서 버리는 폐유, 산업쓰레기 등해야릴 수 없다. 쓰레기가 바다로밀려가면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것은 물론 해양생태계를 마비시킬우려가 있다.

일반쓰레기의 대부분은 육지에서 버린 것이다. 육지인들은 오래전부 터 쓰레기를 산이나 하천주변에 함 부로 버리기 일쑤였다. 산천에 미구 버려진 쓰레기들은 폭우 때 강을 거쳐 바다로 유입된다.

이제 바다를 살려야 한다. 바다가 신음하면 인간도 신음하고, 바다가 죽으면 인간도 죽는다. 인류는 바다 에서 고기 잡고 조개 줍고 삶을 캐 며 살아간다. 바다는 미래 성장의 핵심동력이자 인류 문명의 보고이 다.

독자제언

범죄 피해 예방 통한 여성 대상 악성범죄 근절

최근 발생한 여고 기숙사 불법 촬영 물 유포 등 여성 대상 악성범죄가 사 회적 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날이 갈 수록 흉포화, 지능화 되고 있어 경찰 은 지난달 17일부터 8월 24일까지 100 일간 집중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여성악성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 뿐 아니라 공중화장실과 탈의실. 학교기숙사 등을 대상으로 불 법카메라 설치여부에 대해 점검할 예 정이라고 한다.

수사와 단속도 중요하지만 잊지말아할 것은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어떤 보복이나 수사과정에서 신분 노출 등으로 인해 2차 피해와 신고단계무렵부터 철저한 신변보호와 신속한일상 복귀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12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 맞춤형순찰, 가

해자경고제도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해야한다.

경찰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전국 경 찰서에 범죄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 치하여 상처 입은 범죄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을 위해 여러 기관의 협업으로 경제 및 심리적 지원 뿐만아니라 보 복범죄가 우려되는 경우 2차 피해 예 방을 위한 신변보호 제도 등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해상황에 고립되거나 또 다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보호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이 두 번 눈물짓지 않아야할 것이다. 앞 으로 우리 사회가 범죄피해자들에 대 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다.

김정이 고창경찰서 청문감사실 순경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구제금융 반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최근 정부의 국제통화기금(MF) 구제금융 추진 계획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사 설

전북형 일자리 현황이 궁금하다

전북형 일자리 현황이 궁금하다. 지방 선거가 코앞이라 시선이 그 쪽으로 온통 쏠려 있지싶다. 그래 도 관심사 전부를 그쪽으로 돌려 서는 안된다. 지금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날까 염려된다. 전북도는 지방 선거 관 심사에만 몰입해선 안된다. 얼마 전 도내 언론사들이 합동으로 조 사한 바에서 드러나듯 도민들의 최고 관심사는 일자리 창출이다. 지역의 경제 발전에 시선을 고정 시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주문

저번에 물어보았던 것을 다시

물어보려고 한다. 정부의 지역형 일자리 방침과 관련해 착실히 대 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저번에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으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말이다. 도지사와 각 실 국장과 일자리 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100일 플 랜'을 말하고,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체계 구축'을 말하고, '지역 특화 일자리 등 4대 전략'을 말하 고,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책'과 '청년내일일자리채움공제' 도입을 말한 게 다시 생각나는 요즘이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와 전국의 고용 위기지역들을 위해서 3조9천 억 원을 풀기로 했다. 전북도는 청년일자리 창출 성공을 위해 계 획이 치밀해야겠다. 전북도는 전 임 정부 때 도내 일자리 창출의 성적표가 좋지 않았던 것을 상기 해야 한다. 그것은 다른 광역 시 도와 비교해 무언가 부족한 점이 있음을 의미한다. 전북도와 각 시 군이 계속해서 일자리 창출에 나 섰다지만 젊은이들로부터 볼멘 소리가 나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 는 사실이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침에 따라 전북도도 여러 번 강 조해 말했던 바 전북형 일자리 찾 기는 매우 중요하다. 다른 고용위 기 지역 도시들도 자기 쪽으로 많 은 예산을 가져 가려고 할 것이기 에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

전북도는 군산시와 남원시등 고용위기 지역의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지 않을 것이다. 기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이들도 바라는 바는 한결같다. 괜찮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이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전북형 일자리 창출에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 본보는 도내 젊은이들 중 40%가 넘게 지역을 떠나고 싶어 한다는 것은 고민할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전북도는 취직 자리 구하기에목이 마른 젊은이들을 생각해야한다. 전북형 일자리 사업이 반드시 성공해야한다는 격려이다.

전북 기업유치 활발해야

전북도는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납득할만한 성과를 보여주어야겠 다. 그러려면 초여름 초입인 지금 도 유치작업을 활발하게 전개해 야 한다. 기업유치는 광역 시도 지역간 경쟁이 아닐 수 없다. 따 라서 유치된 기업에게는 실제적 이고도 구체적인 도움도 생각해 두고 있어야 한다. 수도권이나 다 른 지역의 기업들을 이쪽으로 데 려오려면 그래야 한다. 전북도가 기업유치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도민들의 눈높이에는 아직 미흡 하다. 지난 수년간 보여준 기업 유치 성적표가 만족스러운 게 아 니기에 하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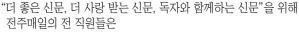
전북도가 기업 유치를 활발하게 전개해야 할 이유는 뚜렷하다. 도 내에 일자리가 부족하고 고용 환 경도 열악하다. 그런데 그 원인 중의 하나를 들라면 기업 유치의 저조함을 손꼽지 않을 수 없다. 신규 고용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 했다는 보고가 오래 전에 있었지 만 공감하기 어려웠던 게 생각난 다. 기업유치 효과라는 게 기대치 만 높혔을 뿐, 실속이 없었던 것 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는데 전북 도는 그 보고하는 바가 보다 구체 적이고 확실해야겠다. 양해 각서를 교환한 기업들이 많다고 낙관해선 안 된다는 당부이다.

전북도가 지난 날에 보고했던 유치 실적을 여기 다시 언급하고 자 한다. 얼른 생각할 때 그것들 은 대단한 성과였다. 앞으로 거액 이 투지될 예정이고 고용창출 효 과도 대단할 거라고 보고 했던 발 표를 그대로 인용한다면 말이다. 그래서 좀 오래된 것이기는 해도 지난날의 해프닝을 생각하면 쓴 웃음이 나온다. 투자 규모가 실상 을 밝혀주는 그대로 속내를 보면 결과적으로 어이가 없었던 게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래서 예전에 언급했던 것을 또다시 강조하고 자 한다. 중요한 것은 양해 각서 가 아니라 실제 투입된 돈의 액수 라고 말이다.

전북도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하는 기업이라야 진짜로 우리 지역에 유치된 기업이다. 전북도가 기업 유치 작업을 활발하게 해야할 이유는 명백하다. 전북도는 도내 미취업자들에게 희소식을 들려 주어야한다. 기업 유치 작업을 활발하게 전개해 달라는 당부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